

## 성문하부와 기관협착에 대한 후두기관 확대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조계식\* · 조형호 · 임상철

성문하부 및 상부기관 협착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질환중의 하나이며 치료법이 다양하여 협착의 정도, 위치, 환자의 전신상태, 술자의 기호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 하게 된다.

저자들은 연골이나 골 또는 근골막피판을 이용하여 성문하부 및 기관 확대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1991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이 방법으로 수술 받은 환자 중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한 16례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률, 이식재료, 삽입한 stent 종류 및 삽입기간, 수술횟수, 치료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환자의 연령분포는 1세에서 68세까지 다양하였고, 10세 미만이 4례 성인이 12례 였다. Trough 법에 의한 2차 재건을 시행한 1례를 제외하고는 전방

윤상연골 절개만 시행한 경우는 6례, 전 후방 동시 절개는 9례 였다. 확대를 위한 이식 재료로는 늑연골 2례, 이개연골 10례 (이중 2례는 갑상연골과 동시 사용), 갑상연골 5례(이중 2례는 이개연골과 1례는 흉쇄유돌근골막 피판과 동시 사용), 흉쇄유돌근골막 피판 2례 였다. 사용한 Stent 는 Montgomery T-tube 10례, finger cot 6례, Montgomery 실리콘 stent 1례 였다. 16례중 5례에서 실패하였고 이중 3례는 소아 였다. 11례의 성공례에서 수술 횟수는 평균 4.36 회 였으며, 평균 치료기간은 8.45개월 이었다. 수술에 따른 감염, 이식 재료의 괴사등은 없었으며 기타 치명적인 합병증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연골을 이용한 성문하부 및 기관의 확대수술은 안전한 수술이긴 하나 수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고 기간이 길며, 치료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방법으로 사료 되었다.